

광주시 '일자리 알선' 적극 나선다

종합센터·추진단 신설 ...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중기·산단, 구인·구직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광주시가 구인난과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을 위해 이달부터 '일자리 연계'에 중점을 맞춘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일 "3월부터 광주고용지원센터에 광주 일자리 종합센터, 하남산업단지 등 지역 내 산단 4곳에 일자리지원센터, 분청 경제통상국에 일자리 추진단을 신설해 지역 내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용지원센터 내에 별도로 설치된 '광주 일자리종합센터'는 그동안 고용지원센터가 수집하지 못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내 최신 구직·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산단 내 일자리지원센터·광주시청 내 일자리추진단과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종합센터는 실시간 맞춤형 취업상담 및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센터는 직업상담, 일자리추진단은 희망근로·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

리 사업, 지역커뮤니티사업 등을 맡게 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하남·점단·평동·소촌산단 등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각각 2명씩 8명의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직원 4명으로 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서로 구직·구인정보를 주고 받으며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구직자와 일자리를 안내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을 5% 이상 삭감한 바 있는 광주시는 이달 중 조기 추경예산을 편성, 이들 사업에 모두 63억원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이 지난해 광주지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1천41곳을 조사한 결과 지역 내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18.5%에 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광주시의 모든 정책은 민생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특히 공공 및 민간 차원의 일자리 연계를 통해 고질적인 구인난·구직난을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만성질환 2천여명 '원격진료'

지식경제부 '스마트케어' 사업 여수시 등 참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 통합의료서비스

전남도가 지식경제부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와 건강관리통합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이 기대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헬스케어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개모집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사업에 전남도·여수시 등이 참여한 SKT컨소시엄과 LG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삼성전자·삼성

생명·인성정보·인포피아·경기·충남 등과 함께 SKT 컨소시엄에 참여, 여수시 65세 이상 노인 2천여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된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IT 기술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분야에 접목한 신개념 의료서비스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총 300억원(지식경제부 75억원·사업자 부담 225억원 내외)이 투자된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단말

기를 가정에 설치해 1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연계함으로써 원격진료, 투약, 건강관리 등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전남도는 지역 의사협의회와 연계, 3년에 걸쳐 3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삼성전자는 당뇨·혈액검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며 인성정보와 인포피아는 화상 진료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스마트케어서비스(smartcare)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를 막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IT 기술을 이용해 원격진료를 하는 신개념 의료 서비스.

광주·전남 오늘부터 8,560명 '희망근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사업'이 8천560명이 참여한 가운데 2일부터 광주·전남에서 시작된다.

광주시는 2일부터 희망근로사업에 3천826명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예산은 219억원으로, 친서민 분야·생산적 사업분야, 주민 숙원사업 분야 등 3개 분야 10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실시된다.

전남도도 국·도비 등 263억4천900만원을 들여 487개 사업장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4천734명의 근로자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참여한다고 밝혔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급여로 일당 3만3천원과 교통·간식비 3천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인 '스위스 비밀 금고' 열린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금내역 부분 공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우리나라 세금탈루자들이 스위스 비밀 금고에 숨겨놓은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돼 역의 탈세를 막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가운데 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며 오는 7월 스위스에서 양국간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정보 교환 방식은 우리나라가 무조건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 탈루 의혹자로부터 스위스

은행 계좌를 받아서 스위스 측에 계좌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로만 한정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처럼 특정 범위를 지정해 스위스에 계좌 내역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세금 탈루 의혹자로부터 받은 스위스 계좌에 대해 내역을 의뢰해 통보받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에 한·스위스 조세협약이 합의될 경우 양국간 세부 기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스위스와 금융 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협뉴스



3·1절 91주년 1일 오전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제9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박광태(왼쪽에서 세번째)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국민분열되면 선진화 길 못간다"

광주·전남 3·1절 행사

이대통령 3·1절 기념사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다양한 생각이 존중되며, 작은 차이를 넘어 최후의 커다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독립 기념관에서 열린 제9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것이 3·1운동의 대승적 화합정신을 계승, 승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정치는 국민의 민생 향상을 위해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서로를 인정, 존중하며 생산적인 실천방법을 찾는 중도실용 477명이며, 전남은 415명이 해당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로 나아갈 수 없고,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돼선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우리는 숭한 대립과 분열을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 국민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왔다"며 "지금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는 굳게 믿는다. 비운 뒤에 합정신을 계승, 승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정치는 국민의 민생 향상을 위해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서로를 인정, 존중하며 생산적인 실천방법을 찾는 중도실용 477명이며, 전남은 415명이 해당된다." /연협뉴스

제 91주년 3·1절을 맞아 1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고, 애국선열의 높은 뜻을 기리는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펼쳐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10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장, 독립유공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거행했다. 기념식에서는 고 김석락 선생(1893~1959)이 일제 강점기 독립을 촉원하는 기원제와 독립만세 구호 활동 등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전남도도 이날 오전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광복회 광주·전남연합회 등 보존단체와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삼일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그래, 어떻게 감동을 줄거냐?!

지방선거 투표 외국인 광주·전남 768명 달해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선거법에 따라 6·2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전국적으로 1만여 명에 이르고, 이중 광주·전남지역은 7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세 이상 지방선거 유권자 3천876만 명 중 외국인 유권자는 1만1천680명으로 잠

정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가 216명이었으며, 전남은 552명이다. 외국인은 대선이나 총선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2005년 8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9세 이상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재외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와 국내에 거주신고한 한 재외국민 5만9천800명도 투표권을 갖는다. 광주는 477명이며, 전남은 415명이 해당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의정보고서, 홍보물, 명함, 간판/현수막, 배포, 계약서, 광고대행

www.jwad.co.kr

062)373-2285

지사장 및 사원 모집

신뢰성·전문성·안전성을 모두 갖춘 유학·연수 전문기업 (유학닷컴)이 2010년 더 큰 도약을 위해 직영지사사를 확대합니다. 1991년 유학업계 첫발을 내딛던 이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유학·연수 업계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유학닷컴과 더 큰 미래를 함께 하십시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분야	지원조건	근무지역
지사장	· 유학·어학연수 유경험자 · 조직운영 리더십 보유자 · 지역마케팅 능력 보유자	금여 및 복리후생
신인/경력 유학·연수 상담원	· 유학, 교육관련 지사운영 경험자 우대 · 전문대졸 이상 ·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인천, 수원, 일산, 분당, 천안, 창원, 광주, 전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형절차 및 접수방법

- 심사방법 : 1차 서류 → 2차면접(1차 합격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insa@uhak.com)

3. 연락처

- 문의 : 02)3703-3155 / insa@uhak.com
- 주소 : (100-760) 서울시 중구 정교동 1번지 정교빌딩 14층

유학닷컴 www.uhak.com

강남 02)3483-3000 종로 02)3703-3000 신촌 02) 313-3200 부산 051)817-1149 대전 042)822-0076 대구 053)423-9009

부동산매각공고

◆ 대상부동산

위 치	여수시 중앙동
면 적	4,077㎡(1,233평)
용도지역	상업지역
이용현황	나대지
개발용도	의료시설, 휴양시설, 관광호텔..
도 로	4차선대로 접
매각가격	57억

◆ 특 장 점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 인근.
- 바다조망(돌산대교 등)이 가능한 해안가 도로변에 위치.
- 본 부지 주변 개발호재(엑스포)로 투자가치 및 의료시설 등 개발 최적 입지!!!
- 파격적인急售 價格!!!

문의 : 016-757-7700

전통주 제조 연수생 모집

우리 전통주를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막걸리, 약주, 증류주, 과일주, 리큐류, 기타주 (창업도 가능함)

● 모집기간
조선대학교 : 3월 3일까지 접수
호남대학교 : 3월 5일까지 접수

● 수업기간(4개월 15주)
조선대학교 : 3월 8일 ~ 6월 말
호남대학교 : 3월 10일 ~ 6월 말

문의전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062) 230-7700~3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062) 370-8211~3
강사 : 010-4568-0700